

분열왕국시대

찬양과 경배(Worship) : 13장,245장,400장
말씀과 삶(Word) - 본문 : 열왕기상 11:8-13 (구 532면)

지구상 유일하게 국토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을 보면서 남다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민족의 분단과 이스라엘의 분열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단과 이스라엘의 분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국의 분열은 단순한 이념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난 민족의 분열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공동체인 교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교회분열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분열왕국의 형편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나누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귀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의 만남

왕국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왕상 11:11-13, 30).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선지자 아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여로보암에게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순종한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왕상 11:38). 이스라엘의 분리는 교회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이 벰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분열되었습니다.

1. 남 유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렘 17:1)
2. 북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암 5:2)
3. 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홀로 남은 남 유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사 42:3)